

한반도 첫수도 고창소식

01
2021
제 466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 신 년 사 —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일을 돕는 동물로 여유와 풍요, 힘을 상징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활기를 안겨주는 힘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어 농생명식품수도·역사문화관광수도를 함께 꿈꾸며
서로 손잡고 울려퍼지며 힘차게 일어섰던 한해였습니다.

2021년은 서로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아주면서 울려퍼져 가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군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농수산업의 최적지 '높을고창'의 브랜드를 선명하게 살리고,

생활안전과 군민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고창군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의 기를 살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려퍼지는 '평이군민(平易近民)'의 마음으로 군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자랑스런 군민들이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고창 물건을 사고 지역기업을 키우며,

'자리이타' 정신으로 함께하는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에 모두 손잡고 울려퍼지며 함께 갑시다.

군민의 울력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데

고창 군민 모두가 함께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축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아침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수 올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시무식 열고 본격업무 시작 “모두 하나 돼 박수치고 격려하는 고창군민이 됩시다”



고창군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울력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4일 고창군은 오전 10시 전 직원이 사무실 등에서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의 신년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주민들도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며 고창군의 새해 업무계획에 귀를 기울였다.

고창군수는 시무식 자리에서 “자랑스런 군민들과 하나 돼, 손잡고 함께 간다면 꿈은 이뤄질 것이다. 모두 하나가 돼 박수치고 격려하는 고창군민이 되자”며 “고창군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울려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역 식당과 카페의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했다. 고창군수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겪고 계시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프고 송구하다”며 “힘들더라도 포장·배달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창고용복지센터 본격 운영 .. “일자리 넘치는 고창 이끈다” 고용부, 고창군, 전북새일센터, 전북서민금융센터 한 곳에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1층에 '고창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고창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한곳에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동시 제공 ▲중장년·여성 등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실업급여 ▲복지지원 ▲서민금융업무(미소금융·햇살론 사업자금 상담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그간 고창엔 고용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부안군으로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복지서비스 업무를 보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고창군은 2년여간 끊임없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지난해 말 고용복지센터를 어렵게 유치하게 됐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명의 구직자라도 더 취업할 수 있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소 : 고창읍 고창읍 중앙로 330(선운교육문화회관 1층)
문의전화 : 063)580-0540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예비 문화도시 확정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는 최적지, 고창”



고창군이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예비)'에 선정돼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24일 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총 10곳을 법정 문화도시(예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에는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주제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거점과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가 만들어진다.

고창군의 산, 들, 강, 바다 갯벌은 오랜 '집콕'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다. 특히 가까운 곳에 직접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작품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일상 속 치유도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반도 최고품질 쌀에 도전 '높을고창 친환경쌀' 엄격한 품질기준, 신선도 유지 각별히 신경써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이 ‘높을고창 친환경 쌀’을 출시했다. 앞서 ‘높을고창 멜론’과 ‘높을고창 수박’이 업계 1위 쇼핑몰 ‘CJ더마켓’ 등에서 최고가에 판매되며 쌀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쌀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쌀용 최고품질인 ‘수광벼’ 품종이다. 밥맛을 결정짓는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유량이 낮아 찰기가 좋으며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높을고창 쌀은 친환경 인증, 특품의 출하등급, 단백질 함량 6%이하의 우수한 품질기준과 전용 저온창고 보관, 출하직전 1주일 이내에 도정한 것만을 유통해 신선도 유지에 신경썼다. 10kg에 5만원으로 경기미에 못지않은 고급품 가격에 거래되며, 친환경 인증 최고쌀에 포장지와 인쇄잉크까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며 품격을 높였다.

구입처 : 한결영농조합법인
063)561-4176(택배비무료)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년 새해 본격 운영 무장, 공음, 성송, 대산 지역 농민들 관심집중!!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부권에서도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무장, 공음, 성송, 대산 지역 농민들의 신축년 새해 풍년 농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남부권 임대사업소는 효율적인 농작업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대산면 성남리 부지(6461㎡)에 지난해 6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사무실과 농기계 보관창고(728㎡), 세척장(52㎡), 콘선별장(177㎡)이 새로 들어섰고, 관리기 등 37종 150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 하반기 북부권(흥덕·성내·신림·부안) 임대사업소도 문을 열게 되면, 고창농민들은 동서남북 어디서든 15분이면 농기계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의 :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560-8557,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635-1)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 <http://gochang.amlend.kr/>

3

고창군, 코로나19 환자 안전이송 ‘음압구급차’ 배치

고창군이 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신식 ‘음압구급차’를 신규로 배치해 운영한다. 음압구급차는 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응급구조장비세트, 환자감시장치,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음압캐리어(환자이송 들것)를 비롯해 차량내부에 음압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또 운전석과 환자 탑승공간의 상호호출과 통화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등이 완비됐다. 여기에 쏘라티를 기반으로 한 구급차로 넉넉한 공간확보와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 최현숙 소장은 “확진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군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음압구급차의 배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고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063)560-8716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삶의 공간은 멀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신축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군민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 큰 열정으로 항상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군민이 필요로 할 때 발 벗고 나서는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부지런함과 우직함의 상징인 흰 소의 해입니다. 군민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집중하여 더 즐겁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고창군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고창군의회가 군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롭게 도약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고창군의회 의장 최 인 규

2021년도 회기 운영 계획

회기 (예정)일수 : 총79일(정례회-40일, 임시회-39일)

일 정	구 분	기간 (일)	내 용	비 고
01.14.~01.15.	제1차 임시회	2	군정 업무보고, 의안심의	
02.18.~02.26.	제2차 임시회	9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 의안심의	
04.21.~04.29.	제3차 임시회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안심의	
06.17.~06.25.	제1차 정례회	9	결산검사승인, 군정질문, 의안심의	
07.15.~07.23.	제4차 임시회	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안심의	
09.29.~10.08.	제5차 임시회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안심의	
11.18.~12.18.	제2차 정례회	31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책보고,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 278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고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회

[신축년 특집] 구시포·우봉·우산, 고창에 소 관련 지명이 13곳이나



전북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고창'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은 '소의 해'인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전국 소(丑) 지명 분석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731개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고창이 구시포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 '구시포(九市浦)'는 상하면 자룡리 산98에 자리, 이 근처에 와우 혈이 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이곳은 와우의 구유(먹이통)와 같다고 한다.

소갈재 :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반월 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서우재(西牛峙) : 고수면 은사리 산200(장성군 상통마을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축령산 고개)
오향실 : 아산면 봉덕리 290-1(뒷산의 형태가 소와 같다고 해서, 소 외양간 같다)
도라대 : 무장면 목우리 1227(임금이 소 먹이 터인 목우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갔다)
목우(牧牛) : 무장면 목우리 351(목우리의 마을 명에서 유래)
한사동 : 공음면 장곡리 33(마을 뒤의 등이 소의 형상이라 축동이라 하며, 한사동으로 부름)
축동(丑洞) : 공음면 신대리 896(1880년 천안전씨가 터를 잡고 소를 메는 장소)
목우(牧牛) : 흥덕면 신덕리 516(이 마을의 형체가 소에게 풀을 먹이는 형상)
우평(牛坪) : 고수면 우평리 390(지형이 소의 형국)
평장(平章) : 무장면 신촌리 80(산의 혈이 우장동이며, 평장은 근래에 부르는 이름)
구시포(九市浦) : 상하면 자룡리 산98(어떤 풍수가가 근처에 와우혈이 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
우봉(牛峰) : 해리면 라성리 220-2(이 마을 뒷산이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
우산(牛山) : 해리면 안산리 697(이 동네의 터가 소의 형태)
관동(冠洞) : 성내면 신성리 708-2(마을 뒤에 있는 산 사이에 골이 많아 유래)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 이외에도 소 지명이 고창에는 많다.

글/이종근 기자(새전북신문 문화부 부국장)

'고창 자연 발효 식초 활용' 건강한 탄산음료 라이블링 출시 임박

고창군 최영란 농식품명인의 아로니아발효식초 15ml 포함

주식회사 플라이밀(대표 이상훈, 한송희)이 고창의 자연발효식초를 활용한 건강탄산음료 '라이블링'을 출시한다. 자연발효식초는 4개월 이상의 자연발효와 숙성을 거친 식초로서 '피로회복, 소화촉진, 체지방 분해, 혈당 조절, 면역력 향상'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닌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의 건강관리 필수품으로 주목 받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라이블링 한 병(350ml)에는 고창군 농식품명인으로 선정된 최영란 명인의 아로니아 자연발효식초 15ml가 포함돼 있다. 라이블링은 자연발효식초 뿐 아니라 히비스커스 추출액, 레몬 농축액, 자연 유래 감미료, 제주용암수를 부재료로 활용했다. 플라이밀 이상훈 대표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개발한 아이템"이라고 밝혔다. 건강 탄산음료 라이블링은 오는 1월 중 국내 최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발효식초 최영란 명인



5

[현장] 사진작가로 변신한 고창 어르신들,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화제' 고창시니어클럽 '꿈을 짚는 사람들' 6명, 사진교육 받고 노인시설서 장수사진 봉사



"김치~ 아, 좋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고창군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2층 고창시니어클럽. 교육장 한켠에 임시사진관이 차려졌다. 어르신들은 번호표를 받아두고 순서를 기다렸다. 고운 한복과 정갈한 옷차림으로 예쁘게 단장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 역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다. 어르신 사진가는 모델의 어색한 표정과 포즈를 부드럽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느라 촬영장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고창군 시니어클럽(센터장 박정선) 시장형 사업단인 '꿈을 짚는 사람들'의 사진작가6명은 흰 머리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앞서 고창시니어클럽 '꿈을 짚는 사람들'은 지난 3월부터 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사진기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정의 비용만으로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며 활동하고 있다. 꿈을짚는사람들 김석곤 회장은 "사진을 배우면서 인생이 다시 활짝 피었다"며 "동네 형님·누님들이 과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앞날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찍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는다.

잇따른 나눔과 기부의 동참 릴레이로 고창군의 희망2021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벌써 70도에 육박하고 있다. 12월1일 캠페인 출범을 시작한 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달성한 성과다. 1호기부자로 님프만 고창점의 박재열씨가 겨울이불 100채(1000만원 상당)를, 사단법인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정종구)에서 120만원, 한마음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태은)와 씨미트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영자)에서 아이들과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157만1600원을, (유)엘림건설ENG에서 500만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스님 경우)가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이사장 조남열)서도 1187만4150원, 고창군환경미화원회 모임인 한마음회(회장 정상규) 100만원, 고창청년벤처스(회장 이윤기) 200만원, 매산초등학교(교장 조남아) 학생들이 67만원을 모아 고창군에 전달했다. 또 고창5일장 노점상 상인회 회원들도 성금 81만원, 아이세상어린이집(원장 최은미) 성금 100만원,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진유) 100만원, 대성전력주식회사(대표 권광식) 200만원, (주)가나모지 이장공사(대표 최정화) 200만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회장 손영찬) 200만원, 오교만 선운양만장 대표 500만원, 고창군낙우회 청년분과(위원장 황태경)에서 200ml 우유 2304개, 한국쌀전업농 고창군연합회(회장 오정환) 백미 10kg 100포, (주)웰런비앤에프(대표 윤호식) 석류즙(120개입) 20박스, 전북한우협동조합 불고기용 소고기 170kg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이밖에 석정힐컨트리클럽(사장 김용술) 성금 1000만원, 임진용 대표(주)동림개발·설빙고창점 운영) 200만원과 마스크 3만장, 고창군 기해회(회장 최일동) 100만원, 고수면 신기마을 김숙희 부녀회 300만원, 해리면 송제영어조합법인 고창산 장어즙(150포) 36박스(3500만원 상당), (주)에코하이텍(대표 박종인) 마스크 10만장(3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주)골프존카운티 선운(대표 서상현)에서 성금 1000만원, '한반도첫수도고창밥상' 참여업체 160만원, 레스토랑 비스트로오늘(대표 염성민)에서도 1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6

고창 반암정보화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 최우수마을



고창 반암정보화마을(위원장 김상신)이 2020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에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반암정보화마을은 인근 아산초등학교와 자매결연 맺고 매년 벼농사 체험, 김장담그기, 팥앙갱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마을정보센터를 돌봄교실로 꾸미고 목공 체험, 숲 체험,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한 점 등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안길 23-5 반암정보화마을
대표전화 063-564-1153



고창군 '책이있는풍경', 전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고창군의 사립작은도서관인 '책이있는풍경'이 지난해 전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북도내 340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단 9개소만 선정된 것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한 비대면 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우울감 해소는 물론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문화 공유 확산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 받았다. 책풍은 2013년부터 매년 가을 작가, 가수, 성악가, 음악가 등의 재능기부로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박영진 촌장 진행으로 상설인문학강좌 운영 등 고창군의 대표적인 인문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입전길 47 책이있는풍경
문의전화 : 0507-1383-5657



바른먹거리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업체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 박계영)



고창군 신림면에는 직접 농사지는 시래기 전용무를 이용하여 시래기 가공제품, 수제차류, 각종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2011년 설립된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은 현재 CJ오쇼핑, 롯데닷컴, 위메프, 지마켓, 쿠팡 등에 입점되면서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가운데 식당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완성되는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늘면서 오복농산영농조합의 대표 제품인 시래기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직접 재배한 무청시래기, 쌀, 표고버섯을 가공하여 만든 시래기밥은 2018년 HACCP인증을 받아 출시한 제품으로 위생적이고 투명한 가공 과정을 인정받았다. 또한 진공 스킨팩으로 포장하여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여 혼밥족에게 인기가 많다. 이외에도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의 시래기된장볶음과 시래기고추장볶음은 들깨가루,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등을 갈아 만든 천연조미료와 된장과 고추장, 무청시래기를 볶아 만든 제품으로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고등어조림, 시래기 감자탕 등 다양하게 조리하여 즐길 수 있다.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의 수제차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구수한 맛이 특징인 작두콩차와 돼지감자차의 인기가 좋다.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 박계영 대표는 우리가 키운 농산물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힘쓰겠다고, 10월~12월에 제철인 시래기를 건강하고 맛있게 조리해낸 오복농산의 제품들을 통해서 가을겨울 고객들의 입맛을 돋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 E L : 063-564-1231
홈페이지 : www.1644-5245.com

1월 고창의 인물

김종대(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1934년~)

7



김종대 선생은(1934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서 김영근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낙산(洛山)마을에서 윤도(輪圖)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350년 전으로 마을을 설기(設基)했던 천안전씨가에서부터 비롯됐다. 김종대 선생의 집안이 윤도장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조부인 김권삼 선생이 마을에서 윤도일을 하고 있던 한씨에게서 기능을 물려받으면서부터다. 김권삼 선생은 둘째 아들 김정의 선생에게 윤도장일을 물려줬고, 이후 계승자가 막내 동생의 아들인 김종대 선생이다. 선생은 평생 낙산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윤도는 낙산마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 때문에 12년간 다니던 농협도 그만 두면서 윤도일을 지키고 있다. 오직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잇고자 하는 일념이 숙명으로 받들어 묵묵히 조부와 백부가 해오던 가업을 3대째 윤도제작 기법을 이어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뿐이다. 그 공로로 지난해 12월 8일 보관문화 훈장을 받았다.

윤도란?

지남성(指南性)이 있는 자침(磁針)을 활용해 지관들이 음택과 양택 등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나침반을 말한다.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가는 건 세월이 아니라 나로구나
안재운 제7 시집 / 배문사 / 2020
군립, 성호 : 811.7-안73ㄱ

군립도서관 063-560-8051
성호도서관 063-561-2421

‘가는 건 세월이 아니라 나로구나’는 알아듣기 쉽게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그려내 잠시 다른 이의 일상을 보는 듯한 마음의 시를 담백하고 수수하게 표현해 꾸미지 않은 천연 감동의 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창 예찬과 고창군수에게 쓴 시를 통해 고창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소소하면서도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의 느낀 행복함과 즐거움의 소중함을 깨닫게 시로 표현해 냈다고 할 수 있다.

작가 소개(안재운)
전북 고창 출생, 국립경찰공무원 역임.
매산 장학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및 전북문인협회 회원,
고창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현 회원.

시집
『제2의 청춘』
『혼자 사는 연습』
『꽃이 춤을 춘다』
『황혼에 솟구치다』 등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고창군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추운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오시는 군민들을 보면서, 군수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환경 그리고 군민의 행복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창군의 책무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폭발으로 변해 군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에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중 하나인 중견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외국인 직접 고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기에 직·간접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군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70여개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과 맞먹는 고창군 최대 고용규모이며,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아들·딸들이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모처럼 만의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걱정하는 일부 군민들과 고수면 비대위분들께서 혹한의 추위 속에 매일 아침 고생하시는 **현 상황을 매우 검허하게 받아들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군민들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군수나 공무원 모두도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한마음인 우리 군민들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고수면민들끼리, 고창군민들끼리 갈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고창군은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신뢰 구축과 상생의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기업유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증과 대화를 기초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공론화 방식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대위 대표,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검증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화학적·기술적인 검증결과 동우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주장처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고창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공동 검증 기구’를 상시 운영하여 원료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계획 등을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사후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민생활 환경보호와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유지보전은 고창군의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증폭시켜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는 악취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을 밀폐하고 폐수처리장 주요시설을 지하화**함은 물론,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장주변의 악취와 먼지로부터 마을과 고수면 소재지 유입을 막기 위해 차폐 숲을 만들고, 생계차는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해 야간에 운행하도록 하여 악취·먼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폐수 방류수 역시 1차 자체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2차로 완충 저류지에서 한번 더 자연 정화되어 하천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배출할 계획이며,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농업용수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기 고창천의 유지수로 재활용될만큼 고창천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한, 동우는 **타지자체가 모두 반대해서 고창군이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순창군 등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친 국내 굴지의 가금류 가공 기업이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유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육계 사육농장과 가축 질병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강화’돼 주거지역 1km, 도로·하천 100m이내에는 육계 농장 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원인은 차량, 사람간 전파보다는 야생철새 분변 등 환경적 요인이 크고 **가금류 가공공장이 있다고 해서 AI 발생이 늘어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전남 순천의 산업단지 내에는 화학제품,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에도 흑돼지 가공, 화장품 기업이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환경을 지켜가면서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발전을 이뤄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북 도내에도 익산의 하림, 김제의 사조 같은 가금류 가공처리 기업들이 가동 중이나 통제불능의 환경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져 생긴 단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주민과 기업, 고창군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다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고창군수